

시울 주보

제2469호 2023년 10월 8일(가해)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성당 내부 전경 | 이남규 루카. 레드케임 기법, 1990년,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성당, 횡성

입당송 |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5,1-7

화답송 |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ㄴ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2독서 | 필리 4,6-9

복음환호송 |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 음 | 마태 21,33-43

영성체송 |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김완수 페르페토 신부 | 군종교구 진해해군성당 주임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마태 21,42)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자 제56회 군인 주일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하고 특별한 환경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찾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오던 많은 젊은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승조원들과 9개국 10개 항, 4만여킬로를 항해하는 110일간의 순항 훈련에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이라는 낯선 환경에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당을 떠나 ‘배’라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제가 머물렀던 성당의 교우분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 요즘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110일의 항해 기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느님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 익숙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 한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처럼 홀로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의지할 곳은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 복음의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

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마태 21,42)라는 환호를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서 제구들을 붙들고 미사를 봉헌해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온갖 시련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광야를 통과한 마냥, 우리는 가장 어려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내버려졌던 돌’ 같이 보였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과 땅, 바다라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종 사제들은 이 광야가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장소가 아닌 하느님을 체험하는 장소임을 증거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도 있는 오늘이지만, 지금도 평화의 파수꾼으로 땀 흘리고 있는 군인들을 잠깐이나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군종교구장님과 모든 군종 사제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젊은 이가 군 복무 기간을 힘들고 어렵게만 보내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필리 4,6)하며 하느님을 만나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마태 21,42)

작품
설명

저도 벼려진 돌처럼 결함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함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은총으로 저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 스테인드글라스의 빛나는 색을 보며 같은 것을 묵상해 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도 빛이 없다면 벼려진 돌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밤이 지나 해가 뜨면 아름답게 성전을 밝혀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10월 말씀의 이삭은 교정사목위원회에서 함께 동반하는
다양한 필자분들(일용직 노동자, 최고수, 해밀(피해자 유가족 모임),
자활근로자, 퇴임 교도소장)이 채워주십니다.



이끄심에 대한 응답



정 프란치스코 (가명) | 최고수*

찬미 예수님! 백번을 생각해 봐도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잘한 일을 꼽으라면 하느님의 아들로 살다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끄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완강한 저항을 멈추고, 기력을 완전히 소진했을 때, 하느님의 숨은 계획이 드러난다고 하죠.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종교 담당 교도관님의 권유로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을 만나기 위해 천주교 상담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만나오신 어머님들 세 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고(故) 김자선 엘리사벳 어머니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거부감 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나기 전 종교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하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들은 골치 아픈 성경이나 종교를 강요하는 듯한 말씀은 일절 하지 않으셨고, 대신 맛있는 밀크커피를 한잔 타 주시고 토타이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님들은 그 순간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 맞은편 벽면에 눈길을 잡아끄는 그림 한 점이 걸려있었습니다. 바로 웨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옷, 벗겨진 신발, 세상이 무너진 듯 무릎 꺾인 뒷모습에 떨어지는 빛이 저를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로 올려진 양손과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은 제 앞에 앉아있는 어머님들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날 본 어머님들의 첫인상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얼굴이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같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려는데, 고(故) 김자선 엘리사벳 어머님이 수갑 찬 제 손에 책 한 권을 줘여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생애』라는 책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대충 훑어보니 딱 봐도 머리 아픈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예의상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별생각 없이 읽기 시작한 성인전은 어두운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들어왔고, 그해 겨울 저는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으로 새로 태어나 두 번째 생을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자신을 처형장이었던 ‘죽음의 언덕’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예루살렘의 처형장이었던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최후까지 닮고 싶었던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남루한 곳으로 내려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했던 저의 주보성인을 본받아, 저도 몰락의 밑바닥인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도로 살고 싶습니다. 살롬!

*최고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이를 구치소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목주기도'

“목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황교서 <동정 마리아의 목주기도>에서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보편된(카톨릭, catholic) 교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는 일반적 의미를 담은 고유명사로서 ‘가톨릭교회’라는 말과 구분할 것인데, ‘보편적 교회’는 ‘가톨릭교회’라고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카톨릭(catholic)”이라는 말은 어원으로 볼 때는 ‘전체성’을 가리키는데, 충만함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성입니다.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나타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콜로 1,19) 교회와 관련하여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난 문헌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의 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릭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충만함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참여하는 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 때, 거기에 구원의 충만함이 있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인 보편성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충만함에 관련된 것이라면, 보편성은 신앙의 정통성과 관련 있는데,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은 신앙 교리의 정통성과 관련 있습니다. 5세기에 레앵의 빈첸시오 성인은 “어디서나, 항상, 모든 이에 의해 믿어지는 것이 보편적(catholic)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의 정통성은 사랑의 정통성과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신앙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

노 성인은 보편성을 사랑의 충만함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보편성이라는 말에는 ‘전 세계에 퍼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2세기에 폴리카르포는 가톨릭교회가 하나인 교회로서 ‘온 지상에 퍼져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온 세상에 퍼져있다는 것은 교회가 다양한 문화, 민족,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다양함이 온 세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분열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풍요로움이 비롯되는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런 다양함 속에서 교회는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이루는 일치, 같은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 같은 희망 안에서 이루는 일치, 같은 성사 안에서 이루는 일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일치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일치 안에 다양함이 있고, 다양함으로 풍요로워지는 일치가 있는 그곳에 보편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란 모든 시대와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그 충만함을 보존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또, 모든 백성과 모든 문화 안에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 진리를 증언하는 곳에, 신앙이 인간의 모든 차원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그곳에 존재하며, 일치 안에서 최대한 다양성이 있을 공간을 주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항상 새롭게, 항상 더 위대한 것을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거룩함처럼, 하느님의 선물이자 과제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에페소 소동과 바오로의 기적

(19,11-20,12)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에페소에서 바오로의 선교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은 에페소에서 바오로의 활동이 꽤 긴 시간 이어졌음을 알려줍니다. 활동 기간은 총 2년으로 회당과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통한 선교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는 토론만이 아니라 기적도 동반된 활동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케우아스 아들들의 구마 이야기와 소동,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살리는 바오로의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우아스 아들의 구마 이야기입니다. 에페소에서 선교 활동하는 바오로를 통해 비범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바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유다인 구마자들이 바오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 바오로의 기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복음 선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부리는 이들이 자기 책들을 불살라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듯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에페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의 주요 요인은 신상을 만드는 은장이들의 선동입니다.

바오로는 예전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신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사도 17,24) 아마도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한 것 같습니다. 이 선포는 신상을 만드는 이들에게 경제적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

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은 복음 선포 여정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을 통해 복음 선포는 로마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리스도교는 로마에 위협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만 군중에게 알려집니다. 소동이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알리는 선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 듯하지만, 하느님은 오히려 역효과를 통해 이를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소동이 가라앉은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로 길을 나섭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그리스에서 셋 달 가량 지냈음을 전해 줍니다. 이때 바오로는 코린토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이후 바오로는 유다인들의 위협 때문에 여행지를 변경해, 필리피를 지나 트로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트로아스에서 있었던 기적 이야기 하나를 전해 줍니다. 기적 이야기는 바오로가 설교가로서 뺨을 떼어 성찬례를 거행하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행에 빠진 이를 돋는 이임을 보여줍니다. 바오로의 복음 선포 여정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오로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이며, 바오로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여정도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과 함께 지속되어야 하고 영속되어야 합니다.



작은 개인들의 지구 살리기 실천



장정화 마리아 리오바 수녀
대방동성당 부설 성모유치원, 노틀담 수녀회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우리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생태 감수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올바른 인성 형성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성당 안에 위치한 성모유치원에서는 매주 선생님들과 함께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실천 방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아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기반을 두고 저희만의 7년 여정 실천 사항을 선정하여 교직원과 유아뿐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① 지구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실천

사항: 장바구니 사용하기, 택배 박스 테이프 제거하고 버리기,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고화질로 보지 않기, 유치원 및 개인 메일 데이터 삭제하기,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리기, 사용 후 전기 플러그 뽑기, 스위치용 콘센트 사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에 맞게 냉난방 조절하기

②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 실천

사항: 사회 취약 계층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기, 굿네이버스 '사랑의 편지'

쓰기 활동, 다문화 가정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사회적 약자 및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각 반에서 기도하기

③ 생태경제학에 대한 실천 사항: 탄소 라벨 제품 구매하기, 과대 포장 사양하기, ESG(환경을 추구하는 기업)가 높은 기업에 관심 가지기, 윤리적 소비하기

④ 겸소한 생활양식에 대한 실천 사항: 제로웨이스트(소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개인 식습관 자각하고 성찰하기 (채식 늘리고 육류 소비 줄이기), 가까운 거리 도보 이동하기, 물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거절하고 사용 중단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인스턴트식품, 정크푸드, 외식, 배달 음식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⑤ 생태 교육에 대한 실천 사항: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가까이하기 위한 환경 구성해 주기, 텃밭 활동을 통한 작물의 소중함 알려주기, 지구 살리기 활성화하기,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 키우기, 구체적인 생태 운동 실천을 가정과 연계하여 활동지로 구성하기

⑥ 생태 영성에 대한 실천 사항: 일주일에 한 번 생태를 위한 기도 생활화하기, <찬미받으소서> 책 읽고 되새기기, 지구의 아픔과 기후 난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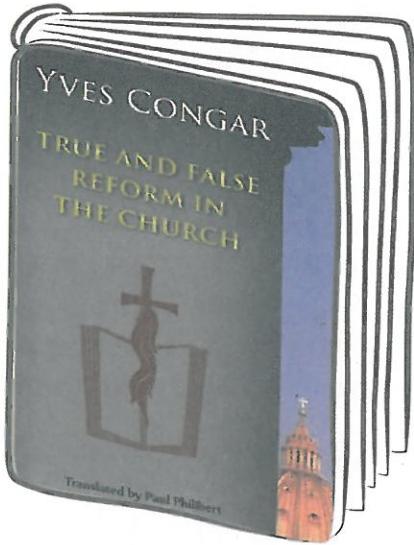
관련 영상보기, 지구를 위한 기도 드리기

⑦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실천 사항: 환경을 위한 포스터 만들기, 가정과 연계하여 생태 보존 활동 널리 알리기, 생태 보존과 관련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여 널리 알리기

이렇게 정한 7년 여정의 실천 사항은 연령별로 유아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천한 부분들은 유치원 카페에 있는 즐거운 지구 살리기, 실천하는 인성 미션 풀더에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지구환경을 위해 듣고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언젠가는 그 습관이 큰 힘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지구촌 환경이 생명으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앎이 실천이 되고 실천이 습(習)이 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육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교육하는 교육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교회의 참된 개혁과 거짓 개혁'

참된 개혁과 거짓 개혁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교회 역사는 교회 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결실을 맺은 개혁도 있었지만, 교회에 상처를 주고 분열을 낳은 운동도 많았습니다. 평신도 신비가의 개혁 운동이 많았던 12-13세기 유럽에서 알도파는 부패한 성직자들을 비난하며 청빈한 공동체 운동을 벌이다 갈라져 나갔습니다. 반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형제회에 대한 교계의 지도를 수용하며 교회 안에 더 깊이 접목함으로써 교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서구 근대가 움트던 15-16세기 아우구스티노회 사제 루터는 당대 교회의 부패한 관습과 싸우다가 바티칸과 갈라서는 '개혁'의 길을 간 데 비해, 종교심문관의 의심을 받았던 평신도 이냐시오는 교계의 지시를 수용하고 소명 여정을 계속하여 예수회를 창설하고 교회를 내부로부터 개혁하는 공헌을 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도미니코회 신학자 콩가르는 1950년 발간한 저서 『교회의 참된 개혁과 거짓 개혁』에서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여러 개혁운동을 검토하여 참

된 개혁과 거짓 개혁을 식별하고 참된 개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신학적 성찰을 전개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참된 개혁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애덕의 우위입니다. 결실을 맺는 개혁 운동은 자신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보다 애덕에 바탕을 둔 사목적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체 교회와 친교(communio)에 머무는 것입니다. 개혁 운동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전체 교회가 아니며 전체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다른 이들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는 개방성과 겸손이 생겨납니다. 루터와 이냐시오가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셋째는 쇄신은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는 것보다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현대의 맥락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개혁이 더디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낳은 개혁 운동의 특징은 "느리게 일하는 하느님과 교회를 존중하지 않기에 초기 영감에 있던 모호한 요소가 분파적인 방향으로 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콩가르는 전체 교회와 나누는 친교에서 교회의 중심부와 변방 사이에 있는 내재적인 긴장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변방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도 교회 중심의 축복 없이 충만한 개혁이 힘듭니다. 동시에 변방이나 기층의 참여가 약한 채, 위에서 시도되는 개혁 역시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직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 위한 현 교황님의 개혁에 대해 한국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0월 4일부터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가 2년에 걸친 지역 교회의 참여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지만, 한국 교회 구성원의 시야에 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님의 개혁 운동이 기층의 참여가 약한 미완의 개혁으로 남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콩가르는 천천히 일하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고 격려할까요?

오늘(10월 8일)은 '군인 주일'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56회 군인 주일입니다. 군인들을 사목하고 계시는 군종 신부님들의 노고와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일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군인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10월 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2001년 10월 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 2009년 10월 11일 최광연 모세 신부(73세)
- 2017년 10월 11일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80세)
- 2020년 10월 14일 임태경 루카 신부(85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3년 9월 5일)

1.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총무로 이영제 요셉 신부(서울대교구, 2004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3년 임기).
2.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총무로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서울대교구, 1996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3년 임기).
3. "혼인 교리서" 출판 심의,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 출판 심의, 종교교과서 "삶과 종교" 출판 심의,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회칙(개정안) 심의, '장례 미사 신청서'(양식) 변경안 심의, 124위 복자 시성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을 위한 전구 기도 독려 운동, 2025년 희년 준비,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 주교회의 임원 선출 등 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하였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0월10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10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10월10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2023 서울평단협 가을특강

때: 10월13일~11월3일 매주(금) 19시(총 4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1만원 / 문의: 02)777-2013
강사: 조성풀·홍성만·노현기·김연범 신부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참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바이올린, 해금, 뮤지컬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회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0월14일(토) 15시, 가톨릭회관 7층

28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4년 1월19일~27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혀구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문숙 개인전: 1전시실
지·유·미·혜 '가을을 부르다': 2전시실
성모님의 기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4일(수)~12일(목)

향심기도 9박10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58만5천원
때: 10월20일(금) 17시~29일(일) 점심식사 후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명상의 집(우이동)
문의: 010-4565-8898

민족의 회회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87차 미사 10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횡주 본당, 사창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2024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급,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검정고시합격)자 / 원서접수: 10월10일~31일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구역반장 피정

대상: 구역장·반장 / 회비: 1인 7만원(10월30일까지 차수별 선착순 100명 마감)
때, 곳: 1차 11월15일(수)~16일(목) 1박2일 · 2차 11월29일(수)~30일(목) 1박2일, 성 앙베르 센터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
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 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1) 제48회 가톨릭 에코포럼 '기후미식' 일정 안내
10월11일 개최예정이었던 제48회 에코포럼(기후
미식)은 사정상 내년으로 연기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 제55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호하고
자 노력하는 분들과 후원회원
때: 10월19일(목) 11시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온라인 전례학교

때: 11월1일(수)~30일(목)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의 공문 참조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회비: 2만원 / 10월25일(수)까지 마감
실기	대상: 해설자, 독서자, 제대봉사자 회비: 1만원 / 10월25일(수)까지 마감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수여로 드리는 기도	10월10일~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청년 횡주삼례(믿음·信赖· 사랑)	10월11일~11월9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도심 속 반나절 피정	10월20일(금) 15시~18시
바오로 사도가 마주했던 신앙 공동체들	10월26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어농성지 월례 음악피정·2024년 겨울캠프

때: 10월~11월 매월 네번째(토)

내용: 친양미사, 강의 / 친양, 폐제 기도

2024년 겨울캠프: 어농성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미사: 박상호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16일~19일·11월17일~20일·12월1일

~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10월24일~26일·11월9일~11일(행복 피정)·11

월17일~19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

터·주최) / 대상: 개인(본당 전신자 피정, 구반장 피정)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순교 영성 피정

강사: 김경희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때, 곳: 11월4일(토)~5일(일)·2024년 1월20일(토)~21

일(일) 1박2일, 부산 분도 명상의 집 / 인원: 60명

주최: 부산 면형강학회 / 문의: 010-2670-233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부산 분원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b.or.kr>)

제121차 11월17일(금)~25일(토)

문의: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061)373-3001,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010-3540-9001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1월4일(토)~5일(일), 12월16일(토)~17일(일)

3박4일 10월26일(목)~29일(일), 11월16일(목)~19일(일)

8박9일 11월22일(수)~30일(목), 12월26일(화)~2024년 1월3일(수)

40일 12월19일(화)~2024년 1월27일(토)

훈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2023년 성령쇄신전국대회

강사: 바기스 마태오 파라칼 신부, 죄셉 페르난데스 치유은사자 / 문의: 02)777-3211

미사: 이병호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10월14일(토) 6시]30분~17시30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대상: 모든 교우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구산성지 신양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양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신양선조들은 세상의 벼슬보다 천당의 벼슬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 친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0월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회비: 20만원(1부부)

계좌: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 / 쉬는 신자,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10월21일(토) 14시~22일(일) 17시, 아론의 집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0월29일~31일·11월3일~5일·11월11일~13일·11월17일~19일·11월23일~25일·11월27일~29일·12월8일~10일,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10월21일~22일, 11월25일~26일

3545 피정 10월27일~29일, 11월17일~19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3일~5일, 11월17일~19일

세월의 지혜 영성 피정 11월20일~24일

첫번째 기도학교 10월19일 개강, 매주(목) 10주간

대관(30인 이하) 소규모 피정 및 연수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청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최성규 신부(살레시오)

수도회 / 문의: 010-9074-6527

때: 10월16일(월) 13시~16시30분,

곳: 양천성당

교육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친양하는 주법

때, 곳: (월)·(화)·(수)·(금)·(토) 오전반 10시·오후반

13시30분,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교육청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비오 학교

대상: 14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savio.kr

수업: 다큐멘터리, 연극, 바리스타, 요리, 재빵, 통기타, 검정고시 학업지원 / 문의(상담): 02)833-0930

사제·수도자 학교 및 온라인 33일 묵상회

문의(접수): 010-2724-4819 서울마리아 학교

1) 사제·수도자 마리아학교 개설

내용: 전공자들에 의한 마리아론 공부

때: 10월16일~12월18일 매주(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311호 / 회비: 10만원

2) 온라인 33일 묵상회 개최

때: 10월23일~11월27일 매주(월) 20시(6회)

회비: 3만원(33일책·묵상노트·택배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콘 교실(입문반)

강사: 오승민 수사(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김경미

때: 11월7일(화)~10일(금) 개강(12회 강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38만원(이콘판, 개인붓 별도)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화) 오후반 14시~17시

(수) 오후반 10시~13시,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목) 오후반 10시~13시 (금) 오후반 10시~13시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B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목요신학강좌 트랙 IV

때: 10월19일~11월23일 매주(목) 19시30분(6강)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녹화강의) / 02)333-9898 한국CLC

1강(10월19일) 회칙 '모든 형제들'로 세상 보기 박동호 신부

2강(10월26일) 관상적 영성과 문명의 전환 조경자 수녀

3강(11월2일) 현대 세계에서 영적 자유 이근상 신부

4강(11월9일) 세상 밖에 구원 없다-사회적 영성 정경일 박사

5강(11월16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가톨릭 시민 김남희 박사

6강(11월23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식별 현재우 박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모집 / 문의: 02)3274-4996
때, 곳: 매월 개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 회비: 65만원

미사반주법 및 북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10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말씀: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5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지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종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
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미사

선교문화의날 미사(성령선교수녀회) / 문의: 02)741-4895
때, 곳: 10월14일 16시, 성령선교수녀회

실례시오와 꿈 월례미사

때: 10월9일(월) 10시30분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문의: 02)828-3522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0월14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협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기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2024년 중립동역현성당 혼인예식 추첨

때: 10월15일(일) 15시(안내 후 추첨)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주의사항-2024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 받습니다 / www.yakhyeon.or.kr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cf.ac.or.kr)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10월23일~11월27일 매주(월) 10시~15시(30시간)
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재무회계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계약직) 모집

대상: 신자 / 업무: 성당청소 외(주30시간 이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90길 19)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 문의: 02)568-3656 사무실

신정3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2060-8051

분야: 사제관 주방 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10월31일(화)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10) 및 이메일(leesy2205@seoul.catholic.kr) 접수

문정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 행정, 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10월19일(목)까지 이메일(htw5781@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5798,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7가길 14)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0월21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10월15일(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2724-481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교회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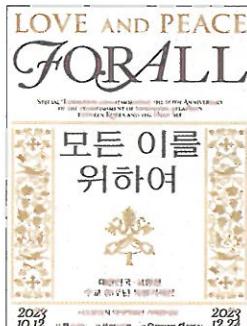
홀리안 로페스 마르틴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695쪽 | 2만8천원
문의: 02)740-9718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장점이며,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전례현장 10장) 이 책은 전례에 관한 모든 주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며, 신비 거행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게 해 내적 생활의 발전, 인간의 성화, 하느님 경배와 관련된 사목적 실천에도 도움을 준다.

**신간****우촌시고(雨村詩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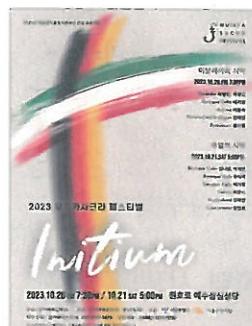
남상교 지음
원주교구문화영성연구소 | 432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남상교는 조선 후기 한시사(漢詩史)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시인 중 한 명이다. 조선 후기 문신이며 남인계 시인이자, 103위 성인 중 한 명인 성 남종삼 요한의 양아버지 우촌 남상교(아우구스티노)가 남긴 저서인 우촌시고(雨村詩稿)를 번역한 책이다.

**전시****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모든 이를 위하여**

문의: 02)3147-2407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무료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올해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국가간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계를 살펴본다. 10월 12일(목)~12월 24일(주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공연****2023 무지카사크라 페스티벌**

입장권: 전석 2만원(인터파크), 현장 발권 가능
문의: 010-2737-3879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차厢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

제1회 무지카사크라 페스티벌은 INITIUM<시작>이라는 주제하에 바로 크 음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격적으로 시도된 여러 장르의 성악과 기악 그리고 작은 양상불과 큰 양상불, 드失落과 합창을 섞어 2일동안 독일과 이탈리아의 곡들로 장식한다. 10월 20일(금) 19시30분~10월 21일(토) 17시,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에서 공연한다.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기념
가톨릭페이 머니 지급 이벤트**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클릭하여 우리은행 WON뱅킹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 혜택1** 가톨릭페이에서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가톨릭페이 머니 5천원 지급 (선착순 10,000명)
- 혜택2**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가톨릭페이로 5천원 이상 충전 시
가톨릭페이 머니 3만원 추가 지급 (1,000명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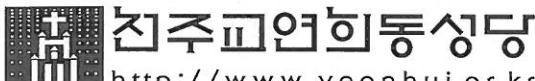
**‘가톨릭하상’ 앱 이벤트 안내**

- 기 간 | 9월 18일(월)~10월 22일(주일)
- 대 상 | 우리은행 계좌 이용 교우
- 참 여 방 법 | ① 이벤트 기간 내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통해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 방문
②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클릭
- 경품 지급일 | 2023년 11월 13일 이후 개별 문자 통지 예정

가톨릭하상 다운로드 →



제230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 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새신자 첫고해

일시 : 10월 8일(주일) 오전 9시 / 소성전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0월 8일(주일) 12시 / 소성전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10월 12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10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종미사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0월 17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목)은 중서울지역 사제의 날로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오로시니어대학 야외행사**

일시 : 10월 20일(금) 오전 7시 30분 성당에서 출발

장소 : 포천 광암이벽기념성당

참석대상 : 시니어대학에 등록된 학생들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남성 을뜨레야

일시 : 10월 15일(주일) 11시 교종미사 후 301호

◎ 여성 을뜨레야

일시 : 10월 24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구역 성지순례 일정

날짜	구역	장소	문의
10/14(토)	5	은이성지	010-2734-0853
10/14(토)	10	요당리성지	010-3953-1114
10/15(주일)	3	어농성지, 단내 성가정성지	010-2490-8853
10/28(토)	1	솔뫼, 해미성지	010-9092-1708
10/28(토)	4	풍수원성지	010-3709-5836
10/28(토)	8,9	풍수원성지	010-6407-9145 010-3239-6553
10/28(토)	11	감곡매곡성모순례지	010-8926-8267

◎ 2023 연희동 청년 음악회한푸름 청년 성가대와 임마누엘 홀리챔버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가을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10월 21일(토) 오후 7시 / 대성전

※ 10월 21일(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청년배움터바오로 68기 새내기 모집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청년, 냉담자, 예비자)

모집 : 9월 10일(주일)~10월 14일(토)

여는마당 :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루치오 (010-3012-5592)

◎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0. 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9	827 (39.6%)	790 (37.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재용 베드로 삼십만원

◎ 감사헌금 (9월 18일 ~ 10월 1일)

곽선모	일만원	조정자	일십만원
의 명	삼십육만원	조상혁	일십만원
의 명	일십만원	조한옥	일십오만원
박종필	이십만원	의 명	이십만원
권경임	오십만원	조순복	삼십만원
의 명	오만원	의 명	이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전명숙	일십만원
정수영	삼만원	이정문	일십만원
이안나	일십만원	남순덕	일십만원
김화정	일십만원	김화선	일십만원
김화진	일십만원	의 명	일십만원
故 이밀다 마르타	상가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5주일)

교 무 금 8,887,000원

주일헌금 5,770,100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6주일)

교 무 금 17,690,000원

주일헌금 5,213,000원

입당 439 | 봉헌 212, 215, 340 | 성체 167, 499, 182 | 파견 64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